

광주시 추석 연휴 민생 대책 강화

9~12일 7개반 종합상황실 운영...선별 진료 정상 운영 성묘·의료·교통·환경·청소·소방·급수 분야 신속 대응

광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난·긴급·교통·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연휴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 등을 증차하는 한편 송정역과 영락공원 주변 교통지도에도 나선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연휴를 맞이함에 따라 선별 진료·검사소도 정상 운영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석연휴 비상상황 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9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종합상황, 성묘·의료, 교통, 환경·청소, 시민·안전, 소방, 급수 등 7개반 265명으로 구성해 일일 평균 66명이 상시 근무한다. 연휴기간 불편사항은 120콜센터와 당직실(062-613-5500-3)로 문의하면 자제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5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무지구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에 설치한 시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씨엠삼 삼성병원, 북구미래아동병원 등 의료상담센터 2곳과 자치구별 행정안내센터 5곳도 쉬지 않는다. 원스톱 진료 기관 99곳에서는 검사,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맡고 치료제 담당 약국 48곳도 연계해 운영한다.

요양 병원·시설에서는 비접촉 면회를 유지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 시설종사자 연휴 전후 근무 시 신속 항원 검사도 유지한다.

시는 연휴 기간 응급 의료진료를 위해 6개 반, 48명으로 구성된 시·구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 20곳, 응급의료시설 4곳은 24시간 진료하도록 했다.

의료정보는 전화로 안내받는 120콜센터(062-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및 시·자치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E-gen'(http://www.e-ge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활용하면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주변 문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8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교통 대책상황실(613-4022)도 운영한다.

연휴기간 교통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33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귀성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264개소도 무료 개방한다. 공공주차장 정보는 공영누리(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 및 공공데이터포털,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해 제공한다.

일부 시내버스 운행도 확대한다. 상무지구-종합버스터미널-영락공원을 운행하는 '518번' 시내버스를 하루 28회 증차하고, 효령노인복지타운-월남동을 운행하는 '지원15번'은 영락공원을 경유해 운행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용전86번'은 영락공원까지 연장 운행한다.

최선영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 관리체계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헌법 고치고 다양한 협력체 갖춰 '수도보다 잘 사는 지방' 만든다



프랑스 워르겐의 회원 지자체 장인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9월 낭트에서 열린 정기 총회장에 들어가고 있다. (France Urbaine 제공)

자치분권으로 여는 미래도시

<5> 프랑스 리옹

2003년 개헌으로 도시 탈바꿈 리옹중심협력체·코뮌 권한 강화

프랑스 지방분권의 성공 열쇠는 '법률 지원'과 '다양한 협력체'로 꼽을 수 있다. 지방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헌법을 손보고, 지역의 많은 협력체들이 사업 제안과 집행에 도맡아 '수도보다 잘 사는 지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분권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프랑스 리옹(Lyon)은 현대화 과정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실업자와 빈집이 넘쳐났다.

리옹의 변화는 프랑스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시작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은 2003년 개헌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리옹은 강력한 지방조직을 구축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조직을 갖춘 리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대표할 경쟁거점사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라 콩플뤼앙스(La Confluence)에는 리옹주정을 비롯해 우체국과 전기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주택단지 등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7월,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알다시피 새 건물들이 올라가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이색 건물이 속속 자리잡고 있어 건축·디자인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강변을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이 자리잡으면서 주변에는 관광객들도 몰려들고, 대형쇼핑몰도 입점하면서 사무와 생활이 가능한 리옹의 대표적인 신시가지가 됐다.

또 소형 선박을 이용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관도 선사해주고 있다. 강을 중심으로 새 단장한 이곳은 수변지역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명 건축물은 이곳의 성공을 세계에 알

리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곳의 오렌지큐브(Orange Cube)는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을 갖춘 랜드마크를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이 곳은 범죄가 잦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다. 최근에도 이곳은 리옹을 찾는 난민들이 가장 먼저 터를 잡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2006년 처음으로 공사가 시작된 후 이듬해 잠시 중단됐다가 2014년부터 시민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현재 550개 업체가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1만4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2만5000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곳의 변화를 이끈 리옹중심협력체(La Métropole de Lyon)는 리옹시를 포함해 인근 5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코뮌 및 코뮌협력체에서 선출된 167명의 의원(6년에 한 번씩 주민투표로 선출)으로 구성된 메트로폴 리옹 의회는 리옹 권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지난 2020년 현재 프랑스에는 우리의 광역단체라 할 수 있는 13곳의 레지옹(region)이 있고 사도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departement)은 96곳이다. 또 이들 지역에는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이며 주민자치단체인 코뮌(Commune) 3만4839곳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성공은 강력한 법률적 지원 덕분이다.

리옹의 변화를 이끈 리옹중심협력체는 헌법 제 72조에 의해 자치단체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데파르트망의 권한과 중심협력체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또 코뮌 공동체는 지난 1999년 법에 의해서 기능이 강화됐고 단기능력협조, 다기능협력조합, 도시지역공동체, 주거밀집공동체, 중심협력체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각종 법률적 지원 속에서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여전히 중앙집권화가 심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를 프랑스는 강화된 법률을 바탕으로 지방단체에 권력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남도, 고품질 돼지고기 200t 수출 목표 순항

냉장육 홍콩 수출...103t 성과

전남도가 전남산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 양돈산업 안정화를 위해 연간 200t 규모의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잇다와 인도 업체 간 계약을 통해 전남산 돼지고기 65t(7억4000만원 상당)을 수출했다.

특히 전남도가 양돈 산업 안정화를 위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고, 지역 육가공업체인 ㈜동명축산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부터는 홍콩에 돼지고기 냉장육을 본격 수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홍콩시장에 매달 17t씩(돼지 200마리 분량), 현재까지 103t(1500마리) 등 6억 2000만원 어치를 수출했다. 연말까지 200t(3000마리) 12억원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절저한 품질관리와 수출 규격품 생산을 통해 고품질 전남산 돼지고기가 홍콩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하겠다"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한우고기 등 다양한 고품질 전남산 축산물에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축산물 수출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전남산 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6억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추석맞이 공공배달앱 지원·할인 확대

가맹점주 수수료 50만→100만원...할인 쿠폰 지급 등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공공 배달 앱 '위메프' 지원·할인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공공 배달 앱을 통한 주문 1건당 1000원씩인 가맹점주 배달 수수료 지원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달부터는 공공 배달 앱에 새로 입점한 가맹점

을 대상으로 배달, 픽업 주문 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발행한다.

광주 상생 카드로 결제 시 적립 비율도 기존 1% 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올렸다.

이 밖에도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연휴 기간 3000원 할인 쿠폰 지급(9·11일), 20%페이백(10·12일) 프로모션을 하고 이달 중 픽업 주문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송권춘 광주시 경제정책관은 "위축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민의 소비 진작을 위해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광주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일자리 우수기업 공모

광주시, 15~27일 모집

광주시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업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및 근로자 인원 5명(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의 고용 실적을 낸 기업이다.

신청기업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한다. 심사에서는 신규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